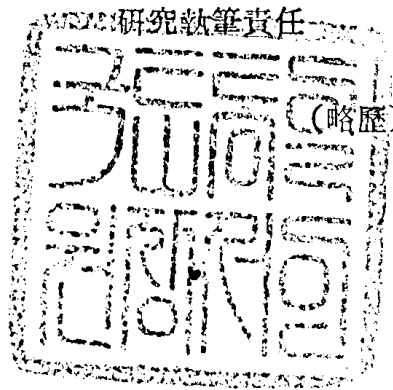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安保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日本の 軍需産業 現況과 再武裝의 方向

— The Japanese Military Industry and
Directions of Rearmament—



李 基 鐸

延世大學校 政外科卒業(1958)
東京大學校. 政治學碩士(1963)
파리大學校. 國際政治學博士(1970)
延世大學校 政外科教授(1970-現在)

刊 行 責 任

朴 鏞 德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要 約 文

베트남사태이후, 특히 카터行政府의 美地上軍撤収에 관한 公式発表
가 있는 이후, 日本의 軍事問題는 再武裝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本論文은 再武裝의 의미와 日本軍需産業의 기초를 규명하려는 것
이다.

軍事戰略, 武器体制등을 포함한 日本再武裝의 方向을 研究하는데
는 몇가지 接近方法和 方法論이 있다. 첫번째의 接近法은 日本資
本主義의 歷史라는 側面에서 軍需技術 또는 軍需技術의 歷史 및
日本軍需産業에서의 軍需技術에 초점을 맞추어 日本軍需産業을 研究
하는 것이다.

두번째의 接近法은 第2次世界大戰以後의 美·日間의 軍事戰略의
규명을 가능케 하는 兩國間의 軍事的 친선이라는 角度에서 日本의
軍需問題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兩國間의 軍事的 結속관
계가 極東 또는 太平洋地域에서의 軍事的 機能과 軍事的 役割에
대한 假定을 美·日에 여하히 配分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세번째의 接近法은 韓國戰의 발발과 이로인한 特殊한 軍事的 수
요에서 戰後 日本軍需産業이 始發되었다는 觀點에서 研究를 시작하
는 것이다. 戰後 日本의 軍需産業의 始發은 韓國戰爭의 발발에

따라 美国이 日本企業에 軍事裝備을 주문한데서 시작되었다.

戰後 日本의 軍需産業은 1950年の 韓國戰爭에 美国이 介入함으로써 자극되었는바 美国은 本國에서 멀리 떨어진 이 地域에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日本의 軍事的 兵站術에 의존치 않을 수 없었다.

日本軍需産業은 時期的으로나 技術的으로 韓國戰에서의 美軍武器를 수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네번째의 接近法은 日本軍需費用에 관한 經濟的 指數를 계상하는 것이다. 사실상 많은 專門家들이 日本軍費에 관한 經濟指數를 GNP 등으로 인용하곤 한다. 물론 이것은 日本의 軍事問題에 관한 分析을 위한 것이다.

다섯째의 接近法은 日本의 武器体制과 日本軍事戰略을 連結시키려는 것이다. 사실상, 日本武器体制은 당연히 軍事戰略에 따라서 發展하여 왔다. 그 전형적인 政策이 “防衛力整備計劃”이다.

1次防은 1958-60年, 2次防은 1962-66年, 3次防은 1967-71年, 4次防은 1972-76年에 걸쳐서 實施되었다. 이러한 計劃은 日本防衛와 軍事의 事實上的 역할과 관련하여 日本 軍事戰略을 實質的으로 具體化시켜왔다.

日本再武裝의 方向과 關聯하여 첫번째 제기되는 問題는 日本列島에 關한 軍事的 威脅을 如何히 評價하느냐하는 問題이다. 防衛白書와 같은 政府報告書에서 日本은 自國에 대한 軍事的 威脅은 소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間接的으로 기술하고 있다. 同防衛白書

에서는 日本列島부근에서의 소련 海·空軍活動에 관한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일람표에 의하면 論理的으로 소련의 위협을 인식할 수 있다. 아마도 日本은 自國에 대한 최후의 적이 소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西太平洋駐屯美軍을 포함하여 駐韓美地上軍의 撤収이래 日本은 특히 西太平洋에서의 對潛水艦戰에 대비한 軍事力量을 增強시키고 있다. 西太平洋上에서의 責任과 役割을 인지하여 日本은 東北亞로부터의 美軍撤収를 조금씩 보충해 나가고 있다. 2次大戦이후 처음으로 日本은 이 지역에서의 軍事的 役割을 인지하여 軍事強大國이 되어가고 있다.

日本이 당면한 제 1의 軍事役割은 勿論 日本의 軍事力量을 領海 밖으로까지 擴大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西太平洋上에서의 對潛水艦戰이라 할 수 있다.

日本再武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核問題이다.

사실상 日本 再武裝의 진정한 의미는 核武器體制와 관련된 것이다. 日本의 核武裝에 장애가 되는 것은 技術的인 問題가 아니고 心理的인 問題이다. 당분간은 日本의 核武裝여부는 日本國民들의 心理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軍事當局과 政府에서는 結局에가서는 論理的으로 그들의 防衛를 위해 防衛的인 최소한의 核武器는 보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目 次

第一章 問題의 接近과 方法	7
第二章 日本軍需産業의 現況	14
第一節 日本의 軍事傳統과 軍事工業力	14
第二節 韓國戰爭과 日本軍需工業의 再起	16
第三節 第一次「防衛力整備計劃」에서 第4次「防衛力整備計劃」 (1958-1970 年)	20
가. 一次에서 四次까지의 軍需	20
나. 軍需複合體의 強化	32
다. 「基盤的防衛力」의 構想과 內容 (4 次以後)	37
라. 77 年度에 調達되는 主要裝備現況	39
마. 日本自體生産裝備 重要品目과 開發會社	40
바. 日本工業生産에 있어서의 防衛生産의 位置	41
第三章 日本의 再武裝과 方向	42
第一節 再武裝의 一般적 性格	42
第二節 日本의 防衛와 “威脅” (Threat) 問題	43
第三節 韓半島로부터 美軍撤収와 日本의 防衛	47
가. 「西太平洋」에 對한 軍事的인 責任	47
나. 美·日間의 軍事的 連繫	49
다. 日本의 韓國 및 대만에 對한 再評價	49

第四節 日本의 軍事的對處—蘇聯에 對한 「對潛水艦作戰」	50
第五節 日本의 核問題	52
가. 軍事的 核問題	52
1) 小型核武器의 保有	52
2) 南韓의 核과 日本의 防衛	53
3) 韓日間의 核問題	54
第六節 軍需面의 最近動向	55
第四章 結 論	57
부 錄〔註〕	58

第一章 問題의 接近과 方法

日本の 軍需産業에 對한 研究와 이를 基礎로하는 日本軍事의 再
武裝의 方向을 研究, 檢討하는데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接近方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第2次 世界大戰以後의 日本의 政治的인 特殊性等에서 기인하는
軍事와 關聯하는 政治的인 複雜性은 더욱이나 日本軍事의 性格을
武器體系나 기타 순수한 軍事的인 特徵을 分析・檢討하여도 日本軍
事의 方向을 알 수가 없다는데서 기인하는 戰後의 日本軍事의 複
雜性에서 더욱이나 研究課題로서 어려운 일인 것이다.

아래에서 몇가지의 日本軍事에 對한 接近이나 方法에 對한 問題
를 序論的으로 간단하게 檢討하여 본다.

勿論 아래에서 기술하는 接近이나 方法이 그 하나를 갖고서 日
本特殊現況의 性格이나 特徵 或은 나아가서 日本軍事의 方向을 잘
研究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이나 接近
에 對한 分類的인 考察을 함으로써 보다 正確하게 그리고 폭넓게
日本の 軍事를 파악하는데 方法論的으로 接近하기가 쉽거나 便利하
다는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도 아래에서 記述하는
接近이나 方法을 혼용함으로써 論文을 進行시키는 것이다.

첫째 : 日本의 軍需産業이라는 問題를 日本의 工業力과 결부시키면
서 파악하려는 接近이다.

日本의 “軍需工業”이라는 問題를 中心하여 日本의 資本主義體制

의 形成過程속에서 軍需工業이라는 “技術”이 차지하는 部分을 研究・檢討함으로써 日本의 軍事的인 性格을 파악하려는 接近인 것이다.

이 分野에서는 日本의 軍需工業이 日本 資本主義形成過程에서 어떻게 成長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는데 있다. 明治維新을 前後하여서 부터 “軍事매뉴팩처”(軍事manufacture)의 形成이라는 西歐의 軍事技術의 手工業的인 導入으로 부터 特히 明治維新이래 成立부터 “機械製 軍事工業”의 成立으로부터 近代的인 軍需工業의 形成起源을 檢討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日本의 “産業資本主義”로 부터 軍事工業이 어떻게 日本의 資本主義体制속에 內在的으로 組立되어 들어 가는가 하는 過程의 研究와 나아가서 日本의 帝國主義形成과 軍需工業과의 關係를 論하는 接近이다. 1)

둘째로는 주로 第2次大戰以後의 日本의 軍事体制라는 觀點에서 特히 美國과의 軍事戰略上的 問題를 위주로하여 接近하는 方式이다.

美・日間의 軍事的인 分擔이 軍事戰略上이나 軍事的인 役割의 “機能”과 “分擔”이 어떻게 戰後에 있어서 展開되어 오고 있는가 하는 觀點에서의 接近方式인 것이다.

確實히 日本의 軍事는 점차 独立的인 性格을 最近에 와서 띄기는 하나 역시 戰後직후부터 “敗戰”이라는 角度에서 軍事占領以後 美國의 軍事的인 테두리 속에서 展開되어 왔다는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日本의 軍事技術이나 政策面에서 美國과의 軍事關係라는 觀

점에서 理論을 展開하거나 日本軍事的 性格을 파악하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美國의 戰後 “對日占領政策”으로부터 轉換하는 對亞細亞政策이라는 데두리에서의 “冷戰政策”으로의 轉換은 日本列島를 亞細亞의 “兵器庫”라는 角度에서 오늘의 日本의 軍需工業이나 再武裝의 方向을 주로 美·日關係라는 “條件”下에서 檢討하려는 接近인 것이다.

세째 : 日本의 軍需의 戰後의 起源을 韓國戰爭과 關聯시키는 方式이다.

日本의 軍需産業이나 工業技術의 始作이 1950年の 韓國戰爭을 起點으로하여 “特需”라는 美國의 對日 軍需品の 발주에 依한 日本軍需의 再起라는 觀點에서 日本의 軍需工業의 始發을 發動시킨 것이 事實인 것이다.

韓國戰爭이 발발하자 美國은 일단 美國兵器의 “수리”라는 것을 日本에게 의탁하게 되었고 다시 간단한 兵器의 발주등으로 日本의 兵器産業이 始發된 것이다. 오늘의 日本의 兵器産業의 體系化의 起源은 韓國戰爭이며 이를 다시 展開시키는 것도 韓國戰爭이라는 것을 強調하는 것이다.

네째, “軍事費”라는 觀點에서의 檢討나 接近方式이다. 흔히 日本의 軍事力을 表面上 評價할 때에 “지·엔·피”(G·N·P)를 거론하는 式의 接近인 것이다. “軍事費”의 比率에 對한 分析은 日本의 經濟와 關聯시킬 때에 重要한 分析 지표인 것이기도 하다. 2)

“軍事費”의 特徵을 分析하고 이를 分析 도구로써 적용함으로써 日本의 軍事를 파악한다는 立場인 것이다.

現代의 “軍事費”라는 것의 分類나 關聯을

첫째 : 軍事와 經濟間의 關聯을 檢討하는 것이며,

둘째 : 軍事費의 國際的인 關聯性을 論하는 것이다.

셋째 : 軍事費의 目的이라는 觀點에서 戰略과 關聯시켜 論하는 方式인 것이다.

네째는 軍事費와 軍事技術이라는 觀點에서의 分析이며,

다섯째로는 軍事費와 經濟的인 独占體制와 關聯시켜 分析하는 方式인 것이다.

以上의 몇 가지 分類方法이라는 觀點에서 이러한 要因의 相互作用이 어떻게 相互關聯性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는 일도 重要한 것이다.

다섯째 : 日本의 “武器體系”와 軍事戰略이라는 觀點에서의 研究方法이다.

日本의 武器體系는 確實히 一定한 軍事戰略이라는 觀點에서의 研究方法이다. 그 代表的인 關聯과 特徵이 1958年度서부터 始作된 “第1次防衛力整備計劃” ('58年度—'60年度)에서부터 第2次 ('62年度—'66年度), 第3次 ('67年度—'71年度) 그리고 第4次 防衛力整備計劃 ('72年度—'76年度)에 이르는 사이의 武器體系의 展開와 軍事戰略과의 相關關係에서 進行된 內容을 研究의 資料로 하는 方式인 것이다. 事實上 第4次 防衛力整備計劃에서부터 노골

적인 軍事戰略上의 特徵이 나타나며 “武器體系”와 軍事戰略이라는 相關關係가 特徵있게 나타난다.

그 이전의 “防衛力整備計劃”은 一種의 武器體系의 發展計劃이나 武器충당을 위주로 하는 計劃인 것이다.

‘76年度로 그 끝을 맺은 “防衛力整備計劃”以後부터는 1年단위로하여 武器體系에 對한 決定과 豫算에 對한 決定을 하게 되어 있다.

武器體系나 軍事戰略面에서 對外로부터의 日本에 對한 “위협”의 評價에 따라서 수시로 “유동성” 있게 決定하겠다는 의도에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確實히 日本의 防衛에 對한 問題點에서 ‘70年 後半으로부터는 많은 問題點과 方向에 對한 條件이 具體化하거나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이 事實인 것이다.

이와같이 “武器體系”와 “軍事戰略”이라는 觀點에서 보다 순수하게 政治的인 背景을 배제하고 軍事技術이나 戰略이라는 觀點에서 日本의 現在 또는 今後의 日本의 再武裝의 方向과 性格을 論하는 研究方式인 것이다.

여섯째; 日本의 “核”問題라는 角度에서의 接近方法인 것이다.

日本의 核武裝이라는 問題는 단순한 核問題라는 다른 軍事問題와 分離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라 日本의 軍事問題의 本質속에 포함되는 問題인 것이다.

日本列島를 中心하여 美·中·蘇라는 核國家가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核列強에 依한 포위속에서 日本軍事의 核化라는 問題는 國際的인 關聯性에 있어서나 日本自體의 問題에 있어서나 日本軍事와 基礎的이며 本質的인 問題에 속하는 것이다.

日本軍事는 初期에서부터 憲法上의 制約에도 불구하고 “戰術核”에 對한 政治的인 發言은 항상 議會에서 日本政府로서는 갖지 않는다는 問題에 있어서는 “유보”하는 立場을 취하여 온 것이다. 3)

따라서 日本軍事와 核武装問題는 實現可能性이나 그러한 問題와는 별도로 重要的인 問題이며 接近方法에 속하는 問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日本 軍事의 頂點에 과연 核問題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問題는 日本軍事를 觀察하는데에 가장 重要的인 問題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以上과 같은 몇가지의 日本軍需産業現況에 대한 研究方式이나 對象 및 觀點을 보았다. 이러한 接近方式이나 方法에 對하여 論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接近方式에 對한 重要的인 추가研究의 問題點을 지적해야 한다.

日本の 많은 軍事的인 論文이나 資料는 日本軍事나 이와 關聯하는 “思想的인 觀點”에서의 「이데오로기」的인 各其의 다른 觀點을 취하면서 研究의 出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軍事問題에 對한 研究나 時事評論等에 있어서 많은 思想的인 傾向 卽 左翼側의 資料나 論點이 많다는 點이다.

戰後 日本軍國主義의 剝落로 일단 日本軍事問題를 論하는 것은 타부사 되어 왔고 다만 左翼側의 日本軍國主義와 關聯하는 方式의

研究等이 表面的으로 출간되거나 發表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点이다.

따라서 일단 日本軍事資料라면 우리가 “客觀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資料나 論文이나 文献이 너무 많다는 点을 研究者는 주의
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日本軍事에 對한 資料는 이러한 左翼
的인 문헌속에서도 풍부하고 正確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点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거꾸로 日本의 右翼的인 日本軍에 對한
문헌은 比較的 그 어떤 “주장적”인 政治的인 주장등에 치중하고
있기때문에 도리어 資料價值로서는 없을때가 많은 것이다.

左翼側資料속에는 많은 日本軍事에 對한 資料나 “데이터”를 求할
수 있는 것이라는 点을 研究者는 알 수 있기도 한 것이다. 5)

第二章 日本 軍需産業의 現況

本章에서는 日本軍需産業의 起源과 現況을 본다.

第一節 日本의 軍事傳統과 軍事工業力

日本의 軍事工業은 日本의 國家的인 近代化와 함께 始作된다.

日本의 軍事工業은 日本의 資本主義形成과 함께 日本資本主義形成 이래 全 産業構造에서 特殊한 地位를 占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日本軍事工業의 歷史的인 分析은 日本資本主義의 歷史的 構造의 特性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었다는 것이다.

初期에 있어서는 維新을 前後하여 銃포生産을 계기로 하는 軍事 “매뉴팩처” 단계에서부터 始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日本의 兵器生産의 近代的인 양식과 단계는 國防問題가 오랜 동안의 “德川”的인 国内平和가 깨 어지기 시작하였던 “天保”時代에서 始作하였다. “天保”年代(1830年—1843年)와서부터 日本의 봉건적인 生産器具의 轉換時期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이러한 軍事 “매뉴팩처” 단계와 함께 明治維新을 起點으로 하여 “機械製軍事工業”에로의 轉換을 하게 되었다.

이 時期에 日本은 銃포製造機를 “화란”으로부터 輸入하여 本格的인 “機械製 軍事工業”이 成立하게 되는 것이다. 7)

다시 明治初期에 있어서는 이러한 旧軍需工場을 接管하여 곧 再編成段階로 들어갔다. 8)

明治初期에서부터 始作된 “軍事編制”의 改革은 軍事生産機構의 強化라는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다.

軍事制度의 再編은 “兵器獨立”이라는 角度에서 軍事工業의 強化로 나타난 것이다.

日本の 軍事體系가 보다 確固하게 되는 것은 “清·日戰爭”과 “露·日戰爭”의 期間이었다.

“清·日戰爭”과 “露·日戰爭”의 期間인 1894—1905年間の 期間에서 東京, 大阪의 砲兵工作廠을 포함하는 陸軍兵器工場의 마력수는 7倍로 增加하였으며 同工場의 직공수는 6.2倍로 增加하였던 것이다. 海軍工場도 상당한 팽창을 이 時期에 하게 되었다. 9)

世界 第一次大戰과 이어서 “太平洋戰爭”時期에 있어서는 日本의 軍事工業力은 世界的인 單位로 增加하게 되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事實上 日本의 全 産業체가 軍需化하여 이러한 日本 全企業체 特히 “미쓰비시” 등의 大企業체의 軍需化는 第2次大戰의 終末과 함께 終末을 고하는 것으로 되었다.

美軍의 日本軍事占領政策으로 일단 日本의 “非軍事化”라는 政策에서 軍需産業과 關聯된 企業체에 對한 沒收정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중의 몇가지 政策을 보면

첫째 : 財閥해체정책은 “独占禁止法”('47年3月)으로 나타났으며 私的独占의 禁止 및 公정거래에 對한 확보라는 것으로 財閥해체라는 形態로 나타났다.

다음은 “過度經濟力 集中排除法”('47年12月)이라는 소위 “集

排法”이 선포되었고 이어서 “財閥同族支配排除法”(1948年1月 선포)이었다.

이러한 日本의 軍事傳統에 對한 技術的인 解体政策은 日本의 軍事傳統인 軍國主義的인 性格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10)

이러한 日本의 軍需産業과 軍事傳統은 維新이래 “清·日戰爭”, “露·日戰爭”, “만주사변” 나아가서 第2次大戰이라는 戰爭史를 經驗하면서 軍事傳統과 軍事工業이라는 것이 強力하게 연결되어 온 것이다.

일단 이것이 第2次世界大戰과 日本의 敗戰으로 그 終末을 고하 는듯 하였으나 韓國戰爭이라는 새로운 第2次世界大戰以後의 戰爭을 계기로 하여서 日本의 軍需産業은 새로운 양상을 띄게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第2節 韓國戰爭과 日本軍需工業의 再起

第2次 世界大戰以後의 “非軍事化”라는 美國의 對日政策으로부터 다시 日本의 軍需工業이 再起되는 것은 韓國戰爭에서부터 엮다고 할 수 있다.

“戰後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防衛産業을 재개케한 중요한 계기는 韓國戰爭이었다. 美國은 韓半島에서의 심각한 事態에 對하 여..... 급조되기는 하였으나 경찰예비대를 創設할 것을 우리나라에 지시함으로서 다시 防衛産業再開의 始發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

한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1)

敗戰에 의해서 日本의 군수산업은 解体時期에 들어 갔었으나 그 잠재적인 生産能力을 보존시켜 온 日本의 旧軍事工業은 韓國戰爭을 계기로 하여 이 戰爭을 위한 美國의 軍需物資의 “특별수요”(特需)로 발주 됨으로서 日本의 軍需工業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韓國戰爭에 투입된 美兵力이 빠짐으로서 駐日美軍의 數가 一個師團이 모자라게 됨으로서 日本人에 의한 “경찰예비대”가 급조되었고 이 “경찰예비대”는 作戰, 兵站基地 日本의 防衛와 치안유지를 “분담”케 한 것이다.

이와 並行하여 軍需産業도 병행되었다. 그 並行과정은 美軍이 “아카바” 作業所(赤羽)를 日本製鋼에게 경영케 하면서 전투차량의 “수리”를 하게 하였다. 그외에도 다른 공장들이 역시 美軍의 車輛修理나 공병兵器에 대한 修理를 맡게 되는데서 日本의 戰後兵器産業의 기점이 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거의가 旧軍隊의 시설이나 工場을 利用하게 하였으며 官民合同으로 經營하는 式으로 修理 청부를 하게 한 것이었다.

韓國戰爭의 발발로 日本은 美國의 “前進補給基地”化 하였으며 美軍의 軍需수주로 日本의 기업자체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日本의 戰後 工業의 出発은 軍需수주라는 軍需工業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韓國戰爭개시일로부터 2個月동안만해도 韓國戰爭에 기인하는 “特需”는 144億원에 達하였던 것이다. 12)

51年6月에서부터 1年間の “特需”는 美貨로 3億弗에 달하였다. 1953年の 休戰協定에 이르는 동안의 特需 계약고는 物資 7億7千139万弗, 서비스가 3億6,548万弗에 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52年4月 對日平和條約 發効直後부터는 美軍은 完成된 兵器에 대한 發注를 시작하였다. 日本兵器公회의 조사에 의하면 52년부터 57년에 이르는 사이의 發注된 武器特需는 520億 원으로서 특히 53年(207億), 54年(228億 원)의 兩會計年度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兵器라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탄약이 98%로 기타로서는 박격포 200문 정도였다.

이와 병행하여 美軍의 韓國移動에 따른 “예비경찰대”의 장비 조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4) “豫備警察隊”의 장비 조달은 668億 원(50年—53年) 그 대부분이 車輛, 通信기재, 食糧 등이었다. 武器, 탄약은 3億 원에 지나지 않았다.

自衛隊의 再編作業이 진행됨과 동시에 美軍으로부터 이양 받았던 中古武器에 대한 國產兵器로의 갱신, 국내보급 태세를 확립 할 것을 주장하는 요구가 일었다.

防衛庁은 처음으로 火器의 調達方針을 決定하고 이에 대한 生産系列이 決定되었다. 합정에 대해서는 1953년에 国内發注가 되었으며 55년부터 취역하게 된다.

軍需産業에 있어서 특히 주목된 것은 航空機 生産에 대한 부문이었다. 1952년에 “航空機 제조법”이 제정되었고 美軍機에 대한 “修理特需”가 시작되었으며 53년에 젯트 전투기 F86의

分解修理가 “미찌비시” 重工業 및 “가와사키” 航空機에 발주된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55年 6月 美日경비부담에 의한 제트기 生産協定이 체결되었으며 “新미찌비시” 重工業이 F86을 300 機를 生産하고 “가와사키 航空機”가 “T33 제트 연습기”를 210대 生産하기로 되었다.

이의 國産化는 최종단계인 58年에 이르러서도 50%에 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에 의해서 日本 航空機의 軍需工業力의 기초가 形成된 것이다. 14)

이와같이 日本 軍需工業의 시발은 韓國戰爭을 기점으로하여 美國 軍의 “修理”라는 것을 工業力의 기술적인 기점으로하여 日本의 軍需産業이 재기하게 되는 것이다.

日本은 敗戰과 함께 軍需工業의 母體였던 “미찌비시” 등의 제벌 기업에 대한 “解体”라는 政策을 일단 美軍政이 실천에 옮겼으나 韓半島에서의 전쟁 발발 즉 “冷戰”이라는 戰後史의 특징이 결국 日本의 軍需工業의 재기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 日本 스스로가 軍需조달 계획을 58年부터 計劃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서 부터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며 오늘의 日本軍需産業의 독자적인 기초를 이루게 되는 새로운 時期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第三節 第一次 防衛力 정비계획에서

第四次 防衛力 정비 계획(1958-60年)

가. 一次에서 四次까지의 軍需

第一次 “防衛力整備計劃”에서부터 第四次 “防衛力整備計劃”이라는 것은 결국 軍需工業의 補給支援計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第一次 計劃은 58년부터 60년까지였다. 이 一次年度에 있어서는 “骨幹的 防衛力”의 整備計劃을 한다는 것이 그 目標였다.

이 3年間の 防衛關係 비용은 4,641億 원으로서 60年度末에는 대략 整備目標가 달한 셈이 되었다. 이것에 의해서 自衛隊가 일단 近代的인 軍隊로서 그 기초를 確立하였다고 評價하고 있는 것이다. 15)

第一次 整備計劃期間에서의 국내 조달은 2,789億 원이었으며 50年-57年 사이의 8年間の 合計인 2,415億 원을 상회하는 수치가 되었다. 一般收入, 유상원조를 포함 할 때에는 60年度까지 5,601億 원이 투입된 것이다. 이에 無償援助까지 포함된 수치가 즉 無償援助 4,973億 원을 가한 額數가 조달 總額인 것이다. 防衛庁의 國內調達이 “特需”를 상회하기 시작한 것이 1955年度부터였다. 國內調達이 無償援助額을 넘기 시작한 것이 56年度부터였다. 56年으로부터 軍需産業으로부터의 調達面에서 自衛隊의 調達이 주가

된 셈인 것이다.

1960년에 美日間の “新安保條約”이 체결되었다. 이해에 “기시” 내각의 退進으로 二次防衛整備計劃은 決定이 一年 연기되어 61年度 단년도計劃이 되었다. 62年度에서 66年度까지의 二次防衛力整備計劃은 一次防衛力整備計劃에서 기초하였던 “骨幹的 防衛力”의 “內容充實”이라는 政策 目標가 되었다.

“內容充實”이라는 것은 장비의 近代化, 機動력의 強化, 後방 시설의 整備, 탄약의 비축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中점으로 하여 “內容의 充實”이라는 政策으로 第二次 防衛力 整備計劃이 進行되었다.

軍需現況과 關聯하는 그 規模를 파악하거나 畧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一次防衛計劃으로부터 四次防衛計劃에 이르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래 표와 같다. 16)

防衛力整備의 推移

区 分 (年度)		1 次 防 (33 ~ 35)	2 次 防 (37 ~ 41)	3 次 防 (42 ~ 46)	4 次 防 (47 ~ 51)		
陸 上 自 衛 隊	自衛官定數	170,000人	171,500人	179,000人	180,000人		
	基 幹 部 隊	平時地域配置 하는 部隊	6個管区隊 3個混成團	12個師團	12個師團	12個師團 1個混成團	
		機動運用部隊	1個機械化混成團 1個戰車群 1個特科團 1個空挺團 1個教導團	1個機械化師團 1個戰車群 1個特科團 1個空挺團 1個教導團	1個機械化師團 1個戰車群 1個特科團 1個空挺團 1個教導團 1個해리콤퍼터團	1個機械化師團 1個戰車團 1個特科團 1個空挺團 1個教導團 1個해리콤퍼터團	
	隊	低空域防空用地 對空誘導彈部隊		2個高射大隊	4個高射特科群 (外에 1群의 準備)	8個高射特科群	
	海 上 自 衛 隊	基 幹 部 隊	對潛水上艦艇部 隊 (機動運用)	3個護衛隊群	3個護衛隊群	4個護衛隊群	4個護衛隊群
			對潛水上艦艇部 隊 (地方隊)	5個隊	5個隊	10個隊	10個隊
			潛水艦部隊		2個隊	4個隊	6個隊
掃海部隊			1個掃海隊群	2個掃海隊群	2個掃海隊群	2個掃海隊群	
陸上對潛機部隊			9個隊	15個隊	14個隊	17個隊	
隊	主 要 裝 備	對潛水上艦艇	57隻	59隻	59隻	61隻	
		潛水艦	2隻	7隻	12隻	14隻	
		作戰用航空機	(約220機)	(約230機)	(約240機)	約210機 (約300機)	

区 分 (年度)		1 次 防 (33~35)	2 次 防 (37~41)	3 次 防 (42~46)	4 次 防 (47~51)
航 空 自 衛 隊	航空警戒管制部隊	24 個警戒群	24 個警戒群	24 個警戒群	28 個警戒群
	要擊戰鬪機部隊	12 個飛行隊	15 個飛行隊	10 個飛行隊	10 個飛行隊
	支援戰鬪機部隊	—	4 個飛行隊	4 個飛行隊	3 個飛行隊
	航空偵察部隊	—	1 個飛行隊	1 個飛行隊	1 個飛行隊
	航空輸送部隊	2 個飛行隊	3 個飛行隊	3 個飛行隊	3 個飛行隊
	警戒飛行部隊	—	—	—	—
	高空域防空用地	—	2 個高射群	4 個高射群	5 個高射群 (외에 1 群의 準備)
	對空誘導彈部隊	—	—	—	—
主 要 裝 備	作戰用航空機 (約1,130機)	(約1,100機)	(約940機)	約 490 機 (約900機)	

(註) 作戰用航空機中()內는 연습기를 포함 全航空機의 기수를 나타
냄.

1~3 次防의 隊數等은 各防衛力整備計劃기간末의 것임.

이에 의해서 陸上自衛隊는 6 團구대, 4 混成團으로부터 13 個師團으로 再編되었고 火力이 약 50% 강화 되었다. 航空自衛隊는 초음속의 제트전투기 F104 제이^스를 61 年서부터 64 年까지의 기간에 배치 되었으며 63 年에는 "Badge System" (自動 경제조직)의 도입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海上自衛隊는 60 年에 対空미사일 적재함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一次防衛計劃까지는 호위함은 沿岸용이었으나 二次防衛計劃에서 부터는 航速力 1 万K 이상을 기준으로하여 외양작전 능력으로 강화되었다. 잠수함도 一次防衛計劃에서의 4 隻은 750 톤 급의 극지 防衛用이었으나 二次防衛計劃에서는 1,600 톤급 5 隻이 건조되었으며 航速力은 1 万 2 千 K로 연장 되었다.

二次防衛整備計劃에서 부터는 장비에 대한 調達의 기본路綫을 "自主國産" 政策을 명확히 하기 시작 하였다. 이는 64 年서부터 美國의 無償援助가 중단된다는 데서도 기인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이미 이 시기부터 軍需産業系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단계 혹은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軍需産業系가 国内調達을 요구하기 시작한 데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도표에서 二次까지의 防衛力整備計劃에 대한 대략 한 추이와 目標달성에 대한 것이 설명되고 있다. 17)

第一次 防衛力整備計劃의 目標과 達成現況

区 分		整備目標	1960年度末 実 績	備 考
陸上自衛隊	自衛官 基幹部隊	180,000名 6個管区隊 및 4個混成団	170,000名 6個管区隊 및 4個混成団	
海上自衛隊	艦 艇 航空機	約 124,000 噸 222 機	約 112,000 噸 (約 99,000噸) 217 機	<p>1. 艦艇噸수 約 12,000 噸은 1960년도까지의 건조계획에 의해 취항하는 합정을 합한 1962年末의 噸수이다. 約 112,000 噸은 期末保有 噸수이다. () 內는 期末취역 噸수 임.</p> <p>2. 航空機 222 機는 对潜 哨戒機 P-2V, S-2F 를 포함. 1962年度末까지에 보충되여짐. 217 機는 期末취항기 수 自임.</p>
航空自衛隊	航空機 飛行部隊	1,342 機 33	1,133 機 14	<p>飛行部隊 33 隊의 完全充足은 1958年度에, 航空機 1,342 機는 同年末의 數字 임. 1,133 機는 期末취항機 數 이다.</p>

第2次 防衛力整備計劃의 目標外 達成現況

区 分		整 備 目 標	1966年度末 実 績	備 考
陸 上 自 衛 隊	自 衛 官	180,000 名	171,500 名	
	豫備自衛官	30,000 名	24,000 名	
	基幹部隊	5個方面隊	5個方面隊	
		13個師團	13師團	
海 上 自 衛 隊	艦 艇	約 143,700톤	約 140,200 톤 (約 116,000톤)	1. 艦艇톤수 및 航空機의 機數는 보유기준이다. ()內는 취역기준이다. 2. 実績數에는 南極觀測 - 支援用 自衛艦 5,250 톤 및 航空機 2機를 포함.
	航.空 機	235 機	239 機 (228 機)	
航 空 自 衛 隊	航 空 機	1,036 機	1,095 機	航空機의 機數는 취역기준 이다.
	飛行部隊	24	23	飛行隊의 整備目標에는 飛 行點檢隊, 電子監査隊를 포함. 実績에는 飛行點檢隊를 포 함.
	自動警戒 管制組織	1 式	建 設 中	1967年度末에 完成했다.

2次防衛計劃中에서 보다 “軍需産業”이라는 각도에서 본격적인 母體의 하나인 “經濟團體聯合會”내에 “防衛生産委員會”라는 것이 經濟系에 크게 활약하기 시작 한다는 점이다. 당시에 “軍需産業”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비난이 있게 되었으므로 일단 “防衛生産”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軍需産業”을 의미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게이단렌”(經濟團體聯合會)內的 “防衛生産委員會”는 후에 유명한 “마랏카”해협에서 부터 日本까지의 석유 해상로를 軍事的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軍事戰略을 창안하고 발표하였던 군사전략의 발상 혹은 어떤 의미에서 母體되는 기구가 되는 것이다. 兵器體系 혹은 武器體系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軍事戰略에 대한 발상까지를 兼하였던 것이다.

이 機構의 중요성은 후에 점차로 증대하여 간다. 日本의 “軍需複合體制”를 구성하는 母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自衛隊와 軍需業系間的 파이프라인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2年으로부터는 自衛隊에 대한 調達方法도 개정하여 “數年間”에 걸친 장기 조달계획을 일괄하여 계약하는 制度가 도입 되었다.

이러한 長期契約制度를 도입 함으로서 軍需産業의 安定化, 계획의 확보, 또는 전도금제도가 채택되어 資金面에서도 軍需産業이 우대를 받는다는 制度가 採択된 것이었다.

다음은 1967年서부터 71年까지의 “三次防衛力整備計劃”의 目標은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의 有効한 防衛力の 整備”라는 것이었다.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억지력형의 군비의 제일보를 내

더더게 된 것이었다.

그 중점은 주로 海上自衛隊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対空 미사일 "나이키" 및 "호크"의 국산화 결정 되었다. 또한 "F104J"의 뒤를 이은 주력전투기로서 "F4E" 팬텀의 채용이 決定되었다.

이를 軍需産業面에서 보면 調達額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 으며 調達市場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二次防衛計劃中에는 防衛關係費가 1조 3,927 억원이었으나 3次防衛計劃에서는 2조 5,438 억원으로 1.83배가 된 것이다. 国内調達は 二次防衛計劃에서의 5,781 억원이 3次防衛計劃에서는 1조 2,828 억 원으로 2.22 배가 된 것이다. 18)

主要裝備의 國産・供與의 比率(1960年 現在)

	供 與	國 産	輸 入	計
砲	3,313 門(99)	33 門(1)		3,348 門
銃	208,710 挺(100)			208,710 挺
戰 車	853 輛(100)			853 輛
航空機	828 機(53)	674 機(43)	64 機(4)	1,566 機
艦 艇	52,062 噸(52)	47,916 噸(48)		99,978 噸

(註) () 内는 % . 艦艇의 國産에는 在來艦船을 포함.

1960年 당시의 軍事裝備(라이선스 생산 포함)는 上記表가 지적하고 있듯이 陸上裝備는 0이며 航空機나 艦艇도 半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1次 防衛力整備計劃 당시의 国内調達率は 62%였다.

그러나 2次防衛力整備計劃에서는 81%로 되었고 3次防衛力整備計劃에서는 91%가 된 것이다.

'69年9月 現在로서는 美軍에 依해서 移讓된 艦艇數는 24%로 下落하고 航空陸上裝備는 大部分 國産化되는 것이다.

防衛庁은 1950年 後半에 航空機에 對한 라이선스生産을 始作하는 한편 基本裝備의 国内開發을 開始하였고 이것이 '60年代에 들어와서는 61式戰車, 60式裝甲車, 64式소총, 64式 對戰車 誘導彈 등이 제식화 되었으며 国内生産으로 移讓되었다.

3次防에서 本格的인 近代兵器의 本格的인 生産이 始作되었으며 다시 主力미사일의 라이선스生産이 開始되었던 것이다.

3次防衛力整備計劃에 이르는 重要な 國産化比率를 보면 아래 圖表와 같다. 19)

主要裝備國產化率(%)

種 別	區 分	3 次 防	4 次 防
航 空 機	P 2 J	88	92
	H S S - 2	80	87
	F 4 E J	59	64
艦 艇	護 衛 艦	88	87
	潛 水 艦	99.5	99.2
	機 雷 艦 艇	98.5	100
미 사 일	호 - 크	59	65
	나 이 키	46	47

(註) 防衛庁資料에 依함.

美國의 “無償援助”는 1969년에 完全히 중단되었다. 또한 美 國의 特需가 日本軍需産業에 占하는 比率은 1次防衛力整備計劃에서 26%였으나 2次에서 12%로 떨어졌으며 3次防衛計劃에서는 4.4%로 되었다. 4次防衛計劃의 1次年度인 '72년에는 0.8%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次 防衛力整備計劃의 目標에 對한 達成表를 보면 아래와 같 다. 20)

第三次 防衛力整備計劃目標 및 達成表

区 分		整備目標	1971 年度末 実 績	備 考
陸 上 自 衛 隊	自 衛 官	180,000 人	179,000 人	
	豫備自衛官	39,000 人	36,000 人	
	基 幹 部 隊	5 個防面隊 13 個師團	5 個防面隊 13 個師團	
	호-크 部 隊	4	4	
海 上 自 衛 隊	艦 艇	約 200 隻	約 200 隻	
	航 空 機	約 142,000 臺 約 220 機	約 144,000 臺 約 240 機	
	基 幹 部 隊			
	護 衛 隊 群	4	4	
	掃 海 隊 群	2	2	
	潛 水 隊 群	2	1	
	航 空 群	5	5	
地 方 隊	5	5		
航 空 自 衛 隊	航 空 機	約 880 機	約 940 機	
	基 幹 部 隊			
	飛 行 部 隊	17	17	
	나이키 部 隊	4	4	

(註) 艦艇 및 航空機의 勢力은 就役기준임.

나. 軍·産複合體의 強化

이 時期를 起點으로하여 軍·産複合體制의 強化가 進行되었다.

'70年 “나카소네” 防衛庁長官이 就任하면서 취임파티가 經濟團體聯合會內의 “防衛生産委員會” 外의 軍需關係 5個團體가 주최하여 개최되었다.

'70年 2月에는 “防衛生産委員會”를 中心한 民間軍需産業企業體와 防衛庁이 共同으로 作業을 한다는 것을 “나카소네”가 언명하였다.

이에 對하여 “防衛生産委員會”는 '70年 8月 12日 “次期防衛力整備計劃에 關한 우리들의 見解”를 發表하고 防衛政策 全般에 對한 軍需産業系의 發言權을 높이는 여러 가지 提議를 하게 되었다.

그 後 防衛庁과 業系間의 常設간담회는 '70年 10月 發足하여 防衛庁 裝備局長, 防衛生産委員會 事務局長을 中心하여 每日 一回의 定期會合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第4次 防衛力整備計劃이 '71年 4月 發表되었으나 國內外 輿論 및 亞細亞輿論이 日本의 軍事大國을 目標로 한다는 批判이 나자 '72年 2月 27日 새로운 “에자끼” 防衛庁長官이 “나카소네”案을 完全히 白紙化하고 全面再檢討하게 되었고 結局 “4次防衛力整備計劃”은 “다나카”內閣에 依해서 실질 總額 5조3千億圓으로 減액되어 '72年 10月에 最終的인 決定을 본것이 4次 防衛力整備計劃이었다.

4次防衛力整備計劃의 整備目標은 陸軍의 戰車850대, 海軍의 艦艇이 22萬톤 空軍의 航空機가 800대로 策定되었다.

원래 “나카소네” 案은 10年後 海軍 35萬톤 空軍의 航空機가 1,050 機를 目標로 하고 4次防衛에서 海軍 24萬7千톤 空軍 920 機 陸軍戰車 990 대를 目標하였던 것이다.

決定된 4次防衛整備計劃은 “나카소네” 案을 15% 삭감한 案이었다.

그러나 4次防衛整備計劃 그 自体도 실천과정에서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73年の “오일쇼크” 로 物價上昇으로 未達成部分이 생겼으며 '76年 2月 減額 수정되었다. 卽 4次 防衛力整備計劃은 目標未達成下에 終了한 것이다.

4次 防衛力整備計劃의 目標와 進行過程은 아래 도표와 같다. 21)

第4次防衛力整備計劃の 主要項目關聯勢力推移 (1975.12.31)

項 目	3次防完成時	4次防完成時	
		計 劃	実 績
陸上自衛隊			
戰 車	約 660輛	約 820 輛	約 790 輛
裝 甲 車	約 650輛	約 650 輛	約 640 輛
自走火砲	約 60門	約 140 門	約 80 門
作戰用航空機	約 310機	約 350 機	約 330 機
그중 헬리콥터	約 280機	約 320 機	約 310 機
地对空誘導彈호크	5 群	8 群	8 群
海上自衛隊			
艦 艇	約 210隻 (約17万4千톤)	約 170 隻 (約21万4千톤)	約 150 隻 (約19万3千톤)
그중 護衛艦	48隻 (約9万7千톤)	54 隻 (約12万1千톤)	49 隻 (約10万9千톤)
潜水艦	15隻 (約2万1千톤)	15 隻 (約2万7千톤)	12 隻 (約2万2千톤)
作戰用航空機	約 170機	約 200 機	約 190 機
그중 对潜航空機	約 160機	190 機	約 180 機
航空自衛隊			
航 空 機	約 880機	約 770 機	約 770 機
그중 F-4EJ	約 80機	約 120 機	約 120 機
RF-4E	—	14 機	14 機
T - 2	4 機	約 60 機	約 60 機
FS-T2 改	—	約 60 機	26 機
C - 1	4 機	約 30 機	約 30 機
地对空誘導彈ホーク	4 群	6 群	6 群

第4次防衛力整備計画の主要項目の達成見込

('75.12.31現在)

主 要 項 目	計 划 總 計 (A)	47年度~50年度 (B) (註1)	51年度 要求 (C) (註2)	47年度~51年度 (B+C)	未 達 成 [A-(B+C)]
陸 上 自 衛 隊					
戰 車 (그중 74式戰車)	280輛 (160輛)	201輛 (81輛)	48輛 (48輛)	249輛 (129輛)	31輛 (31輛)
裝 甲 車 (그중 73式裝甲車)	170輛 (136輛)	103輛 (69輛)	7輛 (7輛)	110輛 (76輛)	60輛 (60輛)
自 走 火 砲	90門	10門	10門	20門	70門
作 戰 用 航 空 機	159機	118機	23機	141機	18機
地 對 空 誘 導 彈 立 止	3群	3群	—	3群	0
海 上 自 衛 隊					
艦 艇	54隻 約69,600噸	33隻 約35,700隻	4隻 12,640噸	37隻 約48,300噸	17隻 約21,300噸
護 衛 艦	13隻	7隻	1隻	8隻	5隻
해리콧터탄載護衛艦(DDH)	2	1隻	1	2	0
艦對空誘導彈載護衛艦(DDG)	1	1	—	1	0
艦對艦誘導彈載護衛艦(DDA)	1	0	—	0	1
護 衛 艦 (DDK)	3	1	—	1	2
護 衛 艦 (DE)	6	4	—	4	2

主 要 項 目	計 劃 總 計 (A)	47年度~57年度 (B) (註1)	51年度要求 (C) (註2)	47年度~51年度 (B+C)	未 達 成 [A-(B+C)]
衛 隊					
潛水艦(SS)	5	3	—	3	2
補給艦(A●E)	1	0	1	1	0
計 划	35	23	2	25	10
作戰用航空機	92機	61機	14機	75機	17機
航 空 機	211機	134機	35機	169機	42機
要撃戦闘機(F-4EJ)	46	36	10	46	0
偵察機(RF-4E)	14	14	—	14	0
支援戦闘機(FS-T2改)	68	18	8	26	42
輸送機(C-1)	24	24	—	24	0
高等練習機(T-2)	59	42	17	59	0
地对空誘導弾ノイキJ	2群及1群準備	1群	1群準備	1群及1群準備	1群

(註1) '72~74年度は実績に '75年度は豫算に 依る。

(註2) '76年度は政府豫算案に 依る。

다. “基盤的 防衛力”의 構想과 內容

4次 防衛力整備計劃이 白紙化되는 도중에 새로운 防衛政策이 形成되고 있었다. 이는 “사카다”防衛庁長官이 주무되어 만든 防衛計劃으로서 “基盤的防衛力”이라는 構想이었다.

이것이 “포스트” 4次防衛力整備計劃의 主軸이 되었으며 '76年 10月 “防衛計劃의 대강”이라는 것으로 國防會議 및 閣議의 決定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基盤防衛에 대한 戰略的인 問題는 再軍備의 方向에서 論하기로 하고 아래 表에서 防衛力計劃의 現況과의 比較를 보기로 한다.

(아래 圖表參照) 22)

基盤的防衛力과 現状의 比較

区 分		基盤的防衛力	4 次防実績	
陸 上 自 衛 隊	自 衛 官 定 數	18 万人	18 万人	
	基	平時地域配置하는 部隊	12 個師團 2 個混成團	12 個師團 1 個混成團
	幹	機動運用部隊	1 個機甲師團 1 個特科團 1 個空挺團 1 個教導團 1 個해리콥터團	1 個機械化師團 1 個戰車團 1 個特科團 1 個空挺團 1 個教導團 1 個해리콥터團
	隊	低空域防空用地對空誘導彈部隊	8 個高射特科群	8 個高射特科群
海 上 自 衛 隊	基	對潛水上艦艇部隊 (機動運用) 對潛水上艦艇部隊 (地方隊) 潛水艦部隊 掃海部隊 陸上對潛機部隊	4 個護衛隊群 10 個隊 6 個隊 2 個掃海隊群 16 個隊	4 個護衛隊群 10 個隊 6 個隊 2 個掃海隊群 17 個隊
	主要	對潛水上艦艇 潛 水 艦 作戰用航空機	約 60 隻 16 隻 約 220 機	61 隻 14 隻 約 210 機
	裝備			
航 空 自 衛 隊	基	航空警戒管制部隊 要擊戰鬥機部隊 支援戰鬥機部隊 航空偵察部隊 航空輸送部隊 警戒飛行部隊 高空域防空用地對空誘導彈部隊	28 個警戒群 10 個飛行隊 3 個飛行隊 1 個飛行隊 3 個飛行隊 1 個飛行隊 6 個高射群	28 個警戒群 10 個飛行隊 3 個飛行隊 1 個飛行隊 3 個飛行隊 5 個高射群 및 1 個高射群準備
	主要	作戰用航空機	約 430 機	約 490 機
	裝備			

라. '77年度에 調達되는 重要裝備 現況

'77年度에 基盤防衛計劃下에서 調達되는 重要裝備는 아래 表와 같다. '77年度에 調達된 重要裝備의 內容을 3軍別로 나누어 보면 아래 表와 같다. 23)

昭和 52年度에 調達에 着手하는 主要正面裝備

	種 類	數 量
陸上自衛隊	74式戰車	48輛
	73式裝甲車	6輛
	74式 105 mm 自走榴彈砲	5門
	75式 105 mm 自走榴彈砲	10門
	地对空誘導彈호크改裝用裝備品	教育所要分
	連絡偵察機 (LR-1)	1機
	観測해리콥터 (OH-6J)	110機
	多用途해리콥터 (HU-1H)	3機
	輸送해리콥터 (V-107A)	1機
对戰車해리콥터 (AH-1S)	1機	
海上自衛隊	護衛艦 (2,900噸型)	1隻
	護衛艦 (1,200噸型)	1隻
	潛水艦 (2,200噸型)	1隻
	掃海艇 (440噸型)	2隻
	敷設艦 (4,500噸型)	1隻
	对潛飛行艇 (PS-1)	1機
	对潛해리콥터 (HSS-2H)	4機
航空自衛隊	要擊戰鬪機 (F-4EJ)	12機
	支援戰鬪機 (F-1)	18機
	輸送機 (C-1)	2機

다. 日本自体 生産裝備 重要品目과 開發会社

日本自体生産裝備라는 말은 지금까지 日本의 軍裝備에는 두가지 카테고리 가 있었다. 自体의 技術로 生産하는 것과 美国의 特許下에서 生産하는 소위 “라이센스” 生産이라는 것이다.

아래에 표시한 圖表는 순수하게 日本 自体의 技術로 生産하고 發주된 武器體系를 말 하는 것이다. 24)

国内에서 開發한 主要한 裝備品等

項 目	主 契 約 會 社
젯트中間練習機 (F - 1)	富 士 重 工 業
젯트엔진 (F - 3)	日 本 젯 트 엔 진
對潛哨戒機 (P - 2J)	石 川 島 播 磨 重 工 業
對潛飛行艇 (PS - 1)	川 崎 重 工 業
中型輸送機 (C - 1)	新 明 和 工 業
超音速高等練習機 (T - 2)	日 本 航 空 機 製 造
64式對戰車誘導彈 (ATM)	三 菱 重 工 業
69式空對空誘導彈 (AAM - 1)	川 崎 重 工 業
64式 7.62 mm小銃	三 菱 重 工 業
63式 70 mm FFAR訓練彈	豐 和 工 業
68式 30型 로켓트榴彈	日 產 自 動 車
61式戰車	"
74式戰車	三 菱 重 工 業
73式裝甲車	"
70式自走浮橋	三 菱 重 工 業 · 小 松 製 作 所
遠距離探信裝置 (OQS-101)	日 立 製 作 所
3次元레이더	日 本 電 氣
71式對空레이더裝置	三 菱 電 機
70式野戰特科射擊指揮裝置	"

바. “日本工業生産에 있어서의 防衛生産의 位置”

日本の 工業生産에 있어서의 防衛生産과의 地位를 比率로 보면
아래 圖表와 같다.

특히 武器, 탄약과 航空機分野에서 그 比率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5)

아래의 圖表를 參照해 보면,

日本工業生産에 있어서 防衛生産의 地位

('73 年度速報値)

(單位 : 百萬元)

項目 品目	防衛庁国内調達額 (A)	特需額 (B)	防衛生産總額 (C)=(A)+(B)	工業生産額 (D)	比率 (C)/(D)%
船 舶	20,962	—	20,962	2,250,662	0.93
航 空 機	136,184	1,734	137,918	164,849	83.66
車 輛	9,197	—	9,197	8,263,396	0.11
武器・彈藥	51,541	—	51,541	51,940	99.23
電氣通信機器	60,584	—	60,584	10,158,159	0.60
石 油 製 品	10,847	—	10,847	2,709,712	0.40
石 炭	1,226	—	1,226	106,028	1.16
絨 維 製 品	4,542	—	4,542	6,304,111	0.07
医 藥 品	1,610	—	1,610	1,214,249	0.13
糧 食	21,962	—	21,962	8,467,448	0.26
기 타	27,966	—	27,966	50,341,869	0.06
合 計	346,621	1,734	348,355	90,032,423	0.39

第三章 日本의 再武装과 方向

第一節 再武装의 일반적 性格

日本의 再武装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요건에 依해서 制約되면서 그 性格을 特徵 지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日本을 중심한 國際環境이라는 條件에서 기인하는 제약이며 이는 주로 日本의 재무장을 日本을 중심한 열강들이 어떻게 再武装의 方向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예로는 美·日·中共이 接近할 당시에 있어서 美国議會나 中共이 모두 日本의 “軍国主義 부활”論을 공개적으로 강조하였었다는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日本을 중심한 國際環境이라는 制約條件은 특히 앞으로 있을 수 있는 日本의 “核政策” 특히 平和的 目的의 “核政策”뿐 만 아니라 軍事的 目的의 “核政策”이라는 點에서도 그 관심과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国内的인 制約條件이다.

상금도 日本의 정당은 日本의 自衛隊에 대한 存在조차 인정치 않고 있는 정당이 있을 정도인 것이다. 때로는 헌법상 自衛隊가 法에 위배되느냐 않느냐를 법정에서 論議되고 있기도 할 정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日本 再武装의 方向에 그 어떤 향방이 점차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越南에 대한 美国의 抛棄政策이 日本 一般國民 및 政策立案者들에게 많은 影響을 주기 시작한 첫 단계이며 두째로는

역시 韓半島에서의 美地上軍의 撤収라는 것이 日本 再武裝의 方向에 決定的 影響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26)

第二節 日本의 防衛와 “威脅”(Threat) 문제

우선적으로 防衛政策이나 再武裝의 方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日本의 군사총이 日本에 對한 “威脅”을 어떤 方向에서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問題이다. 이 “威脅”이 오는 方向과 性格에 따라서 日本 再武裝의 성격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76年度 및 77年度판 “防衛白書”에서도 노골적인 日本列島에 對한 軍事的 “威脅”에 對한 구체적인 지적은 없다. 27)

日本 防衛性格을 규정하게 되는 “威脅”에 對한 評價는 現在로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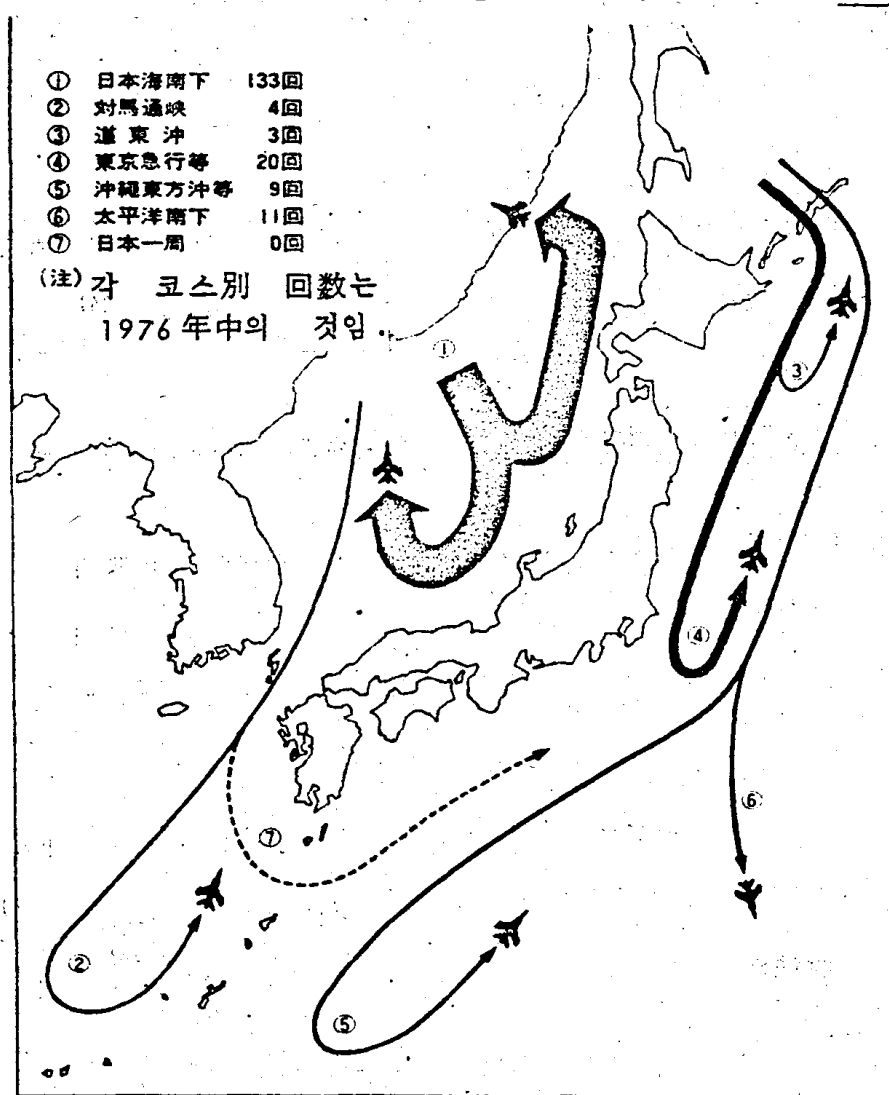
다만 “防衛白書”上에서는 日本 防衛政策의 闡明이나 評價란부분에서 보다 다른 부분 즉 “國際情勢란”에서 日本 防衛에 對한 “評價”가 엿보인다. 國際情勢欄에서 防衛白書가 발간된 이래 항상 취급하는 내용 중에 蘇聯의 海軍과 空軍이 日本列島를 중심으로 기동훈련하는 軍事的 評價와 內容을 항상 도표와 함께 삽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28)

여기에서도 蘇聯의 日本列島를 중심한 海空軍의 機動訓練에 對한 內容을 “威脅”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도표나 기타 설명으로 간접적으로 日本防衛의 “威脅”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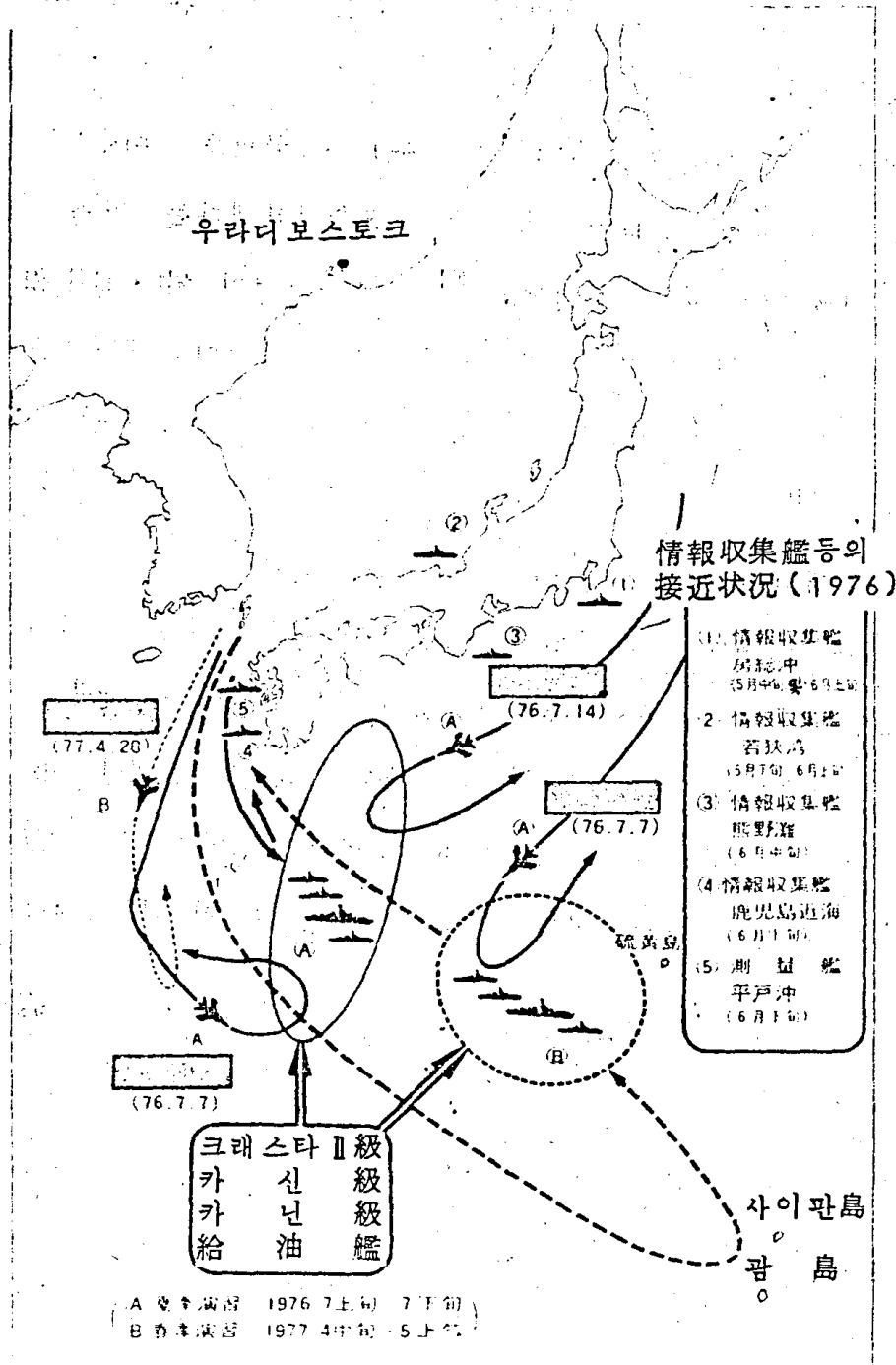
國民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자연스럽게 日本列島에 대한 “威脅”이 蘇聯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29)

※ 日本周辺에 있어서 소련 군용기의 행동개요



※ 日本周辺에 있어서 소련함정의 활동상황



“威脅” 문제와 함께 “威脅”에 대한 評價가 나오면 “假想敵國”이라는 防衛에 대한 目標가 일부 나오게 되는 것이다.

日本은 假想敵國이라는 문제에 대해 항상 침묵을 지켜왔다. 특히 日本 軍事当局은 “假想敵國”에 대한 論議를 극구 기피하고 있다. 이는 序論에서 말하고 있듯이 國內政治的 要因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며 또한 사실상 “假想敵國”을 일정하게 定할 수 없는 것이 日本 防衛의 立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筆者의 금년도 防衛庁 방문시의 인상으로는 “尖閣列島” 이후 부터는 日本의 防衛에 있어 蘇聯 못지않게 中共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日本防衛庁長官(가네마루)은 금년초 美國과의 防衛會談時에 日本은 대만을 日本 防衛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제의한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³⁰⁾ 또 이것이 中·日平和條約이 北京에서 協商 진행 중에 가네마루 防衛庁長官이 이를 공공연하게 發表하였다는 데서 그러한 日本防衛当局者들의 경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³¹⁾

“假想敵國”에 대한 評價를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불가능하다는 立場에 있으나 防衛庁의 制服側은 가령 “蘇聯의 침공을 대상으로 하여 “假想作戰”을 한다는 보도가 있기도 한 것이다.³²⁾

筆者가 76年 북해도에 배치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師團인 第七師團을 방문했을 때에도 역시 실제적인 日本의 假想敵國은 北方에 있다는 것을 브리핑에서나 軍事的 자료에서나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第三節 韓半島에서 부터의 美地上軍의

撤収와 日本의 防衛

日本의 再武裝 方向은 南韓으로부터의 美地上軍의 撤収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가. 西太平洋에 대한 軍事的 責任

日本이 가장 美地上軍 撤収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兩韓으로 부터의 美地上軍 撤収도 중요시 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시 하는 것은 “西太平洋”에서의 美軍事力の 後退인 것이다. 美國은 앞으로 日本에 대한 基地政策을 변경시키면서 日本内の 基地를 말소시킬 것이라라는 点과 따라서 이러한 軍事的 性格의 變化는 美·日 安保條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美·日安保條約은 基地條約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日本内の 基地가 점차로 말소되어 갈 때에 美日安保條約의 실질상의 軍事的 담보(美軍이라는 인질과 基地)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 美國側은 앞으로 日本의 海上基地만이 중요하며 美함대가 日本列島에 도달 할 수 있을 때 만이 美日安保條約은 成立한다는 立場인 것이다.

美國함대가 日本列島에 도달하지 못하고 蘇聯함대가 고려하듯이 특히 “西太平洋”에서 차단 당할 때에는 美國은 日本列島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理論인 것이다. 그러나 太平洋이라는 海洋이 넓어 美國 단독으로는 메꿀 수 없다는 것이다. 日本이 최소한

“西太平洋”에 대한 軍事的 責任을 인수해야 하거나 協力을 해야 한다는 것이 美國側의 立場인 것이다. 33)

여기에서 日本은 戰後 처음으로 軍事的 “분담” 혹은 “기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第二次世界大戰 이후 日本의 軍事的 性格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美日間의 太平洋에 대한 軍事的기능 분담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日本의 西太平洋에 대한 軍事的인 인수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주로 美軍事力의 韓半島와 장차 西太平洋으로부터 美軍의 後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西太平洋에 대한 軍事的인 인수과정은 日本에게 있어 복잡한 과정을 야기시킬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日本 軍事當局은 이에 대한 軍事的 대비를 실제상 進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美日間의 軍事的 連繫

美日間에는 西太平洋에 대한 軍事的인 連繫를 實천하여 가고 있다. 日本은 日本南方의 海域에 대한 군사적 거점들을 基地化하여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유사시 美國함대와 日本列島間의 軍事的 連繫를 통한 軍事的 協力을 계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34) 하와이와 關列島 및 日本間의 중간 지점에 대한 日本 所有 島嶼에 대한 軍事的 거점 확보를 위한 軍事基地 확보와 건설을 進行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美日間의 軍事的關係에 대한 강화

를 위한 軍事的 노력인 것이며 이는 주로 美軍의 아시아 撤収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는 美軍事戰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美日間の 軍事的 노력이나 특히 日本側의 西太平洋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軍事戰略은 유사시 太平洋에서 “補給路의 확보라는 戰略”이 아니라 “敵함대의 격침 戰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35)

즉 “有事時” 美國함대는 日本이나 아시아 友邦의 生存을 위한 “水路”나 “補給路線”을 海軍的으로 확보하기 위한 軍事戰略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약 6個月間은 美國側은 蘇聯의 極東함대를 격침시킨다는 것이 “有事時”의 美國의 기본적인 軍事戰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6個月間은 실제상 美國은 아시아에 대한 友邦을 포기한다는 것이 政策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擊沈作戰”에 대한 기간인 6個月間은 日本이나 韓國등은 자기 生存을 爲한 軍事的인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서 日本側은 美國의 第7함대와 日本列島와의 “連繫”를 위해 日本列島 南方에 대한 軍事 거점 및 軍事的 連繫를 위한 島嶼의 基地化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日本의 韓國 및 대만에 대한 再評價

美軍의 撤収政策이 실천되어 가면서 日本은 南韓과 대만에 대한 軍事的 評價를 새로이 하고 있다. “가네마루”長官의 6月訪美時

에 美国側에게 日本의 防衛圈에 대만을 포함시키겠다고 제의한데서
찾아 볼 수 있으며 防衛庁長官의 “韓日安保는 同一語”라고 한데
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例로 “韓半島紛争은
日本침략으로 간주”한다는 防衛庁 防衛局長³⁶⁾의 發言에서 잘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第四節 日本의 軍事的 대처

— 蘇聯에 대한 對潛水艦作戰 —

日本의 보다 구체적인 防衛의 方向은 상술한 “西太平洋”에 대
한 인수로부터 시작된다. “西太平洋”인수라는 軍事的 “기능”과
“분담”이라는 각도에서 구체적인 軍事的 內容은 “對潛水艦作戰”
으로 표현된다. 蘇聯의 太平洋 진출에 대한 차단작업이 日本軍事
의 첫 대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蘇聯은 70年 73年 75年 3회에 걸쳐 러시아史上 大大的인
海洋作戰을 주로 “西太平洋”에서 시도 하였다. 이의 目的은 주
로 太平洋에 대한 진출을 軍事的으로 시도 해 보는 과정이며 이
에 대한 機動訓練이었다. 이는 실제상 러시아 및 소비에트史上
가장 큰 機動作戰으로서 “아께안”作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
다. 37)

이에 대한 日本側의 軍事的 대처는 蘇聯의 이러한 西太平洋
“遮斷”시도를 어떻게 방어하는가 하는 것이 “對潛水艦作戰”형태
를 取하게 되는 것이다.

日本の “對潛水艦作戰” 을 위한 軍事的 노력은 물론 日本領海 밖에서의 軍事作戰이라는 지금까지의 日本 헌법을 기초로 해서 문제되어온 作戰의 한계선을 벗어난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이다.

“對潛水艦作戰” 을 위해서는 日本의 “海域” 을 확대해 가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항상 海域을 조사해야하며 탐사를 통한 조사활동은 “對潛水艦作戰” 에서 중요한 것이 된다. 이는 또한 韓日間の 海上情報에 대한 교환이라는 軍事同盟적인 문제도 제기 시키며 독도를 중심한 軍事拠点 확보를 위한 紛爭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日本은 海域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外交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軍事的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韓日間の 軍事問題도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대마도해협을 有事時 봉쇄하기 위해서는 韓日間の 軍事協力이 필요하나 실제상 우리의 假想敵國은 蘇聯이 될 수 없다는 각도에서 과연 日本防衛에 軍事同盟的 협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며 문제로서 제기된다.

日本の 구체적인 防衛나 再武裝의 方向은 “對潛水艦作戰” 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第五節 日本의 核問題

日本은 軍事問題 이전에 기본적인 核에 대한 立場이 있다. 38)
日本은 内部資源의 부족으로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특히 “오일쇼크” 이래에 있어서 日本工業力を 지탱 할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에너지資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日本은 이러한 에너지源 특히 石油에 대한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核에너지라는 것이다.

이를 “平和的 目的을 위한 核開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39)

日本의 核開發은 순수하게 平和的인 에너지次元에서 개발하는 것이며 결코 “軍事的 目的”을 위해 이러한 연구나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日本의 입장인 것이다.

가. 軍事的인 核問題

이러한 平和目的의 立場을 변호하는 것이 “非核3原則”인 것이다. 非核3原則은 사실상 日本의 軍事的 核問題에 있어서 일반적인 原則으로 政治的 側面에서 말하고 있다.

日本의 軍事的인 核問題에 대한 몇가지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自衛를 위한 소형 核兵器의 保有” 문제.

“소형 核武器”에 대한 문제를 67年 3月 31日 “사토” 首相이 議會에서의 發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형核兵器 즉 戰術核에 대한 질문에서 사또首相은 “憲法の 해석으로는 소형核兵器는 自衛를 위한 최소한도 실력내의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他國에 대해 침략적 “威脅”을 주지 않는核兵器가 있다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法的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政府가 간단 없이 말하고 있듯이 설혹 憲法上 가능하다고 하여도 政策으로서核兵器의 도입을 인정치 않으며 自衛隊의核장비를 일체하지 않는다. 더욱이나 原子力기본법은 原子力の 開發 研究 및 이용은 “平和的 目的에 한한다”라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음으로 原子力을 殺傷이나 파괴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 방침에 反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40)

따라서 일단 헌법상 문제에 있어서核武器문제는 미결의 문제로서 政治的인 판단 즉 日本의 防衛問題의 變化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變化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또”首相의 언명 이후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南韓의核과 日本의 防衛

美日安保條約에서의 美國에 의한 日本列島에 대한核保護는 南韓內의 美國의 “戰術核”이 그 담보였다.

그러나 韓半島로부터 美戰術核의 後退는 日本의核問題를 軍事的으로 제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美撤軍에서 日本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韓半島로부터의核撤収인 것이다. 美·日安保條約上에서 기인하는核保護는 日本이 美國의核保護를 요구는

하면서도 日本領土内に 核武器 반입은 기피하고 있었다.

따라서 日本列島에 대한 核保護의 “保障”은 南韓의 “戰術核”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日本에게 있어서 美日安保條約과 관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南韓으로 부터의 美軍撤収가 日本列島에 대한 “核保護”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41)

3) 韓日間の 核問題

韓國이 核을 갖는다고 하는 最近 보도는 대부분이 東京을 그 根拠지로 하고 있다. 日本은 그들 주위에서 核國家의 可能性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中共의 核실험시부터 시작되고 있다. 최근 특히 韓日間に 韓國이 核을 武器化 할 것이라는 것은 日本에게 있어서 그들 國民의 核“아레르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政策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核政策에 있어서 日本은 기술적 문제보다 政治的이며 특히 國民의 “心理的 要因”이 平和的 核政策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게 있어서 核의 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는 軍事的 側面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다만 國民의 心理的 要因이 日本 核武裝을 가장 저항하는 要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日本政府는 이러한 國民의 核“아레르기”를 어떻게 말소시켜 갈 것인가 하는 중에서 韓國의 核武裝을 가상적 계기로하여 日本國民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第六節 軍需面の 最近動向

軍需面에서는 軍事戰略과 긴밀하게 갖는 “對潛水艦作戰”과 관련되는 武器體系를 進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P3C 등의 도입 혹은 PS1 등의 발전으로 西太平洋에 대한 蘇聯艦隊에 대한 방어라는 각도에서 武器體系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武器體系를 美國으로 도입하고 있다. 現在 日本이 분야별로 軍需面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이 전 분야에 걸치고 있는 것이다.

1. 戰車(74式)의 開發
2. 유도탄
3. 火 砲
4. 포 탄
5. 소 총
6. 기관총
7. 호위함
8. 潛水艦
9. 어뢰 및 기뢰
10. 비행정
11. 大型해리콥터
12. 전 투기
13. 방공 경제 조직
14. 군용 차량

15. 통신기

등으로 전 분야에 걸쳐고 있는 것이다. 42)

앞으로의 문제점은 “安保輸出”이라는 각도에서 日本의 軍需技術이나 武器輸出이 진행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點이 지적된다.

하나는 美·日間の 軍事會談에서 美國의 “브라운”長官이 日側에 대해 앞으로 韓國의 軍輸体制의 形成에 대해 日本의 “協力”이 필요하다고 한 점이다. 43)

또 하나는 이미 日本은 水炭과 橡炭 등을 필리핀에 輸出하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44)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日本의 軍需工業이 “安保輸出”이라는 각도에서 진행될 가능성과 이가 미칠 影響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日·中共間の 武器協力体制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다.

第四章 結 論

日本の 軍需産業은 일단 日本의 軍事전통이나 工業力이라는 각도에서 그 고찰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日本의 軍事전통은 오늘에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美撤軍을 시작하여 日本의 軍事는 보다 확고한 자세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日本의 再武装의 方向은 美軍의 兩韓으로부터의 撤収 나아가서 “西太平洋”에서의 撤収는 日本에게 불가피하게 “西太平洋”에 대한 軍事的인 “機能”과 “분담”이라는 역사적인 “역할”이 다시 第二次大戦을 획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西太平洋”에 대한 軍事的인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韓半島 安全에도 깊이 影響을 줄 것임은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註]

- 1) 小山弘健, “日本軍事工業의 史的分析”, 御茶의 水書房, 東京, 1972. pp. 15 - 41
- 2) 島茶彦, “軍事實”, 岩波新書, 東京, 1970. pp. 1 ~ 18
- 3)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1976年), 東京 1976年 p. 257 (小型核武器参照)
- 4) 今井隆吉, “核と現代の國際政治”, 日本國際問題研究所, 東京, 1977.
- 5) 좌익측의 日本軍事에 대한 文献은 “新日本新書” 총서속에 많이 포함돼 있다. “軍事問題研究”라는 정기 간행물에도 많은 資料가 있다.
- 6) 日本軍事工業의 史的分析, 前掲書 pp. 19 ~ 29
- 7) “安政5年”에 화란으로부터 총포제조기등 일체의 부속기계를 수입하였다.
- 8) 日本軍事工業의 史的分析, 前掲書, pp. 64 ~ 65
- 9) 上掲書, p. 84
- 10) 日本政治学会編, 「戰後日本の 政治過程」, 岩波書店, 1953, (東京) pp. 4 ~ 5
- 11) 兵器工業協會, 「日本の防衛産業」, 東京, 1961. p. 67
- 12) 白鳥令編, 「保守体制」(上), 東経選書, 東京, 1977. pp. 168 ~ 170. “日本에 있어서의 軍産複合체와 自衛隊” 参照.

- 13) 「保守体制」, 上掲書, p.170
- 14) 「保守体制」, 上掲書, p:171
- 15) 一次에서 四次計劃까지의 本節의 內容은
 “防衛 Hand book”
 “防衛年鑑”(1978年度판)
 “保守体制”
 “世界軍事資料”3卷 등을 종합하였음.
- 16) 防衛庁, 「防衛白書」(77年度), p. 49
- 17) 「防衛 Hand book」, 前掲書, p. 25 - 26
- 18) 「保守体制」, 前掲書, p. 174
- 19) 「保守体制」, 上掲書, p. 175
- 20) 「防衛 Hand book」, 前掲書, p.27
- 21) 「防衛 Hand book」, 前掲書, pp. 28-29
- 22) 「防衛白書」, 前掲書, p. 79
- 23) 「防衛白書」, 上掲書, p. 85
- 24) 「防衛白書」, 上掲書, p. 125
- 25) 「防衛白書」, 上掲書, p. 126
- 26) 本章은 筆者가 3年以來, 日本防衛庁초청으로 日本軍事当局과
 의 인터뷰 및 軍事施設을 視察한 자료를 기초로 기술한 것
 임. 註 생략함.
 一次年度 “對潛水艦作戰” 연구
 二次年度 “海上作戰” 연구

三年度 (78 年度) “ 空軍關係 ” 시찰.

27) 77 年度 및 76 年度 「防衛白書」 各 pp. 51-57 및 pp. 41-46 參照.

28) 76 年 및 77 年度 「防衛白書」 中の 「우리주변의 국제정세」 參照.

29) 「防衛白書」, pp. 31-33

30) 防衛庁 國際局長과의 인터뷰

31) 동아일보 (78.8.2 日) 參照.

「가네마루」 장관은 7 月 31 日 日言論 및 財界人士모임인 「國民政治硏究會」에서 「日本の 防衛」라는 강연중에서 “日本, 韓國, 自由中國은 軍事共同體이며 어느 한쪽이 흔들리더라도 다른쪽에 영향을 준다. …… 韓國, 自由中國의 安全없이 日本의 安全이 없다.” 고 말하였다.

32) 조선일보 (78.8.8 日) 參照.

33) 76 年度 방위청방문시 해막마료층의 브리핑.

34) 77 年度 日訪問時 “해상작전” 브리핑

35) 78 年度 防衛庁방문시 인터뷰 내용.

36) 동아일보 (78.6.30 日) (78.6.10 日) 參照.

37) 「防衛白書」 (76 年度) p. 19 參照.

38) 日本原子力會社 (國際部長) 今井隆吉와의 對談에서

39) 日本의 核問題에 對하여서는 “核と現代の國際政治” (今井隆吉著) 參照.

- 40) 「防衛 Hand book」前掲書, p. 258
- 41) 비공개로서 하비브와 일의상간의 対談内容.
- 42) “日本の兵器産業”, 에코노미스트사, 1968, 参照.
- 43) 조선일보(77.7.28자) 参照.
- 44) 조선일보(78.7.19자) 参照.



ABSTRACT

"The Japanese military industry and directions of rearmament"

Ki-Tak Lee

Since the debacle of the Vietnamese problem and especially since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American ground troops withdrawal by Carter's administration, the Japanese military problem has been raised in a new sequence and in terms of "Rearmament". This dissertation is to explore into the meaning of "Rearmament" in terms of and based on the Japanese military industry.

There may be some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in which we can study the Japanese problem, especially the Japanese directions of rearmament, including some of the military strategy, based on the weapon systems.

The first approach is to study the Japanese military industry and the Japanese industrial technology which focus on the military technology or military technological history in terms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Japanese capitalism and the portion of the military technology in Japanese military industry.

The second approach is to learn the Japanese military problem from an angle of the military rappor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which we can make the researches about the military strateg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Here the question is how the military partnership has been shar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military function" and "assumption of military role" in the Far East or Pacific area.

The third approach is to start our study from a point of view, that is, the starting of Korean War and the origins of post-war Japanese military industry in terms of "Tokushu" (special military demands). The post-war Japanese military industry started originally and timingly from the Korean War when the American army had ordered some military equipments from the Japanese industry. The post-war Japanese military industry was motivated by the American military involvement in Korean War in 1950, and the United States was compelled to employ the Japanese military logistics in this area, far from the American mainland. The Japanese military industry started originally and technically from the reparings of American weapons introduced by the Korean War.

The fourth approach is to account for the economic index about the Japanese military "expenditure".

As a matter of fact, many laymen and specialists sometimes quote the Japanese economic index in terms of military expenditures, for example, GNP and etc. Of course this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military.

The fifth approach is to make the linkages between the Japanese weapon system and the Japanese military strategy. In fact, the Japanese weapon systems have developed naturally according to a certain amount of military strategy. The typical policies are the "Plan for the Defense Capabilities Development". The first Plan for the Defense Capabilities Development started from 1958 and finished in 1960, the second Plan from 1962 to 1966, the third Plan from 1967 to 1971, the fourth plan from 1972 to 1976.

These plans have materialized substantially the Japanese military strategies in connection with the eventual role of Japanese defense and militarism.

With regards to the directions of Japanese rearmament, the first question is how to evaluate the "military threat" to Japanese islands. In governmental papers like the "Japanese Defense White Paper", they describe indirectly the military "threat" to Japan which comes from the Soviet Union.

In this book, they show some diagrammes about the Soviet naval and air activities around the Japanese islands, which illustrate logically the "threat" from the Soviet. Maybe the Japanese are thinking that the Soviets are the eventual enmity to Japan.

Since the American ground troops withdrawl from South Korea, including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from the Western Pacific, they are developp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in this area, especially the Anti-Submarin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and the role of Western Pacific, Japan is compensating little by little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withdrawl from the North-East Area.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Japan is becoming a military Power in assuming a military "role" in this area.

Its first military role is described as "Anti-Submarin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which of course enlarges the Japanese military activities beyond their territorial sea.

The last question about the rearmament of Japan goes to the "Nuclear problem". As a matter of fact, the real meaning of the Japanese military rearament concerns the "Nuclear weapon" system. The obstacle to go nuclear by

Japan is not the technical problem, but the psychological one. In the meantime, to go nuclear by Japan depends on the psychology of Japanese people. But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and governmental circles think that Japan will be allowed to possess eventually and legally the "mini-nukes" which are defensive for their defense.

